

## 금전욕, 마키아벨리즘, 비윤리적 행위의도의 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최 무 진\*

### <요 약>

본 연구는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 즉 스캔들과 부정부패를 야기하는 요인들을 문헌 연구를 통하여 탐구하며 이러한 요인들이 비윤리적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금전욕(love of money)과 마키아벨리즘(Machiavellianism)이 비윤리적 행위의도(intention of unethical behavior)에 미치는 영향과 금전욕과 마키아벨리즘의 관계를 국내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으며, 아울러 학생들의 전공(경영학 vs. 심리학)과 성별(gender)이 이러한 상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전체적으로 금전욕이 비윤리적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하였지만 마키아벨리즘이 비윤리적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금전욕은 간접적으로 비윤리적 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공과 성별에 따라 금전욕, 마키아벨리즘, 비윤리적 행위의도와 관계가 다르게 나타났다. 즉 경영학 전공자나 남성일수록 마키아벨리즘이 금전욕이 비윤리적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경향이 높았다.

한글검색어: 금전욕, 마키아벨리즘, 비윤리적 행위의도

\* 계명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정보학과 교수

논문접수: 2009.8.9, 1차 심사: 2009.10.17, 2차 심사: 2009.10.25, 게재확정: 2009.10.27.

## I. 연구의 목적

경영학 교육(business education)은 세계적으로 큰 비즈니스가 되었으며, 다른 어떤 분야의 교육보다 상업화되었다(The Economist, 2004). 그럼에도 기업들의 부패와 스캔들은 끊임없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최근 기업주가 정치적 권력집단을 위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여 제공하였으며, 기업의 부적절한 인수합병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불법로비를 하였으며,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주식의 시세차익의 실현 등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Enron, Arthur Anderson LLP, Tyco International, Adelphia Communication, WorldCom과 같은 대기업들이 탈세와 회계부정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들이 줄을 이었다.

탈세와 회계부정의 기저에는 큰 이권이 걸려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우수한 인재가 모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국내 금융기관은 물론 미국 월 스트리트 금융가의 최고경영자들에게 지급된 높은 급여는 우수한 인재를 끌어들이는 유인책이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2-1993년에 89,300개의 학위가 수여되었는데 그 중에 경영학 관련 학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08년도 우리나라의 13개 대학이 경영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한국형 MBA를 배출하고 있다. 이들 대학원들의 2008년도 입시경쟁률은 12개 대학이 819명을 모집하였는데 1,368명이 지원하여 평균 1.67:1의 경쟁률을 보였다. 많은 학생들이 경영학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몰리는 동기를 McCabs et al. (2006)은 “재정적 부유가 주는 가치”로 Tang et al.(2006)은 “금전욕(the love of money)”이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가치관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향을 보인다(Staw et al., 1986). 아울러 금전욕이 강한 중역이 높은 조작적 능력과 무자비한 승부욕(즉 마키아벨리즘)을 가짐으로 비윤리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Christie and Geis, 1970). 따라서 마키아벨리즘이 금전욕과 비윤리적 행위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비윤리적 행위, 즉 스캔들과 부정부패를 야기하는 요인들을 문헌 연구를 통하여 탐구하며 이러한 요인들이 비윤리적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금전욕(love of money)과 마키아벨리즘(Machiavellianism)이 비윤리적 행위의도(intention of unethical behavior)에 미치는 영향과 금전욕과 마키아벨리즘의 관계를 국내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정하고자 하며, 아울러 학생들의 전공(경영학 vs. 심리학)과 성별(gender)이 이러한 상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윤리적 위기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Sims(1992)는 심성(bottom-line-mentality)<sup>1)</sup>이라고 보았으며, Kochan(2002)은 이해당사자의 가치 극대화(maximizing shareholder value)로 보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일반화된 이윤추구 메커니즘은 이윤을 극대화하고 더 많은 보너스를 확보하려는 압력으로 작용하여 때로 심각한 결함을 가질 때가 많다(Honeycutt et al., 2001). 엔론사의 최고경영자들에게는 이윤을 창출할 때 스톡옵션의 형태로 상당한 보너스가 지급되었다. 큰 규모의 보너스는 경영자들이 회계부정과 같은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직접적인 동기가 된다. 특히 최고경영자들은 재무보고서를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지적 능력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보너스를 늘리기 위해 회계절차를 왜곡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다.

첫째로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인과 기업이 돈을 벌고 이윤을 창출하는 일은 지극히 정당한 선으로 인정받고 있다. 부를 창출하고 그것을 저축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장려되고 그렇게 교육되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극히 당연한 선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지만 과도한 욕심 역시 금기시 되고 있으며, 금전욕의 반사회적 영향과 부작용도 사회적으로 환기되고 교육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Sloan, 2002). 최근 연구들은 성경이 언급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개역 성경, 딤후 6:10)라는 교훈을 지지하지만 돈(소득) 그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였다(Tang and Chiu, 2003; Vitell et al., 2006). 그러나 돈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예: 금전욕)가 비윤리적 행위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한 논문은 많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금전욕(love of money)이 사람들의 비윤리적 행위와 일정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전제하고자 한다.

둘째로 금전욕이 강한 경영자일수록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회계 절차를 조작하여 자신의 보너스를 올리려 할 것이며, 따라서 비윤리적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여기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회계 절차를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자신의 보너스를 올리려는 성향을 ‘마키아벨리즘’으로 정의할 수 있다(Christie and Geis, 1970).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에 근거할 때, 금전욕이란 대부분 사람들에게 마키아벨리즘 이상으로 원초적이며, 근본적이며,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마키아벨리즘은 금전욕과 비윤리적 행위와의 관계를 어느 정도 매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Tang and Chen, 2008). 따라서 본 연구는 금전욕(love of money)이 비윤리적 행위의도(intention of unethical behavior)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금전욕이 마키아벨리즘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하여 비윤리적인 행위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실

1) 변하기 어려운 참된 마음

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변수들 간 상관관계에 대학생들의 전공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금전욕이 높은 학생일수록 경영학을 전공하는 경향이 높았으며(Cunningham et al., 2004), 경영학을 전공하는 학생일수록 부정행위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때로 용인될 수 있고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으며 비경영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보다 스스로 부정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 그 방증이다(McCabe et al., 2006).

## 2.1 금전욕(love of money)

1971년에 대학 신입생의 49.9%가 대학을 가기로 결정한 중요한 이유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였는데, 1993년에 이 비율은 75.1%로 늘었다(The American Freshman, 1994). Sax et al.(2004)은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대학 신입생의 비율이 1966년에는 42%였는데 이 비율이 2003년에는 74%로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금전적 결핍은 대학생들에게 불만의 가장 큰 원인이었으며(Bryan, 2004), 많이 사람들이 비즈니스 분야로 끌리는 것은 높은 보너스와 급여 때문이었다(Bok, 1993).

Tang and Chen(2008)은 금전욕에 대한 구성개념(construct)을 잘 요약하고 있다. 금전욕은 i) 돈에 대한 애정적, 행동적, 인지적 요소로 구성된 태도, ii) 돈에 대해 규정짓는 의미, iii) 돈에 대한 욕망, 가치, 기대감, 열망, iv) 다차원적인 개인적 변수, v) 다수의 일차적 잠재적 부구성개념(first-order latent sub-constructs)들을 가진 이차적 잠재변수로 정의할 수 있지만 단순한 필요, 탐욕 그리고 물질주의를 일컫는 말은 아니다(Law et al., 1998). 많은 연구자들이 금전욕을 측정할 때 발생하는 분산(variance)이 문화적 차이, 대학의 전공이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Luna-Arocas and Tang, 2004; Du and Tang, 2005). 금전욕을 측정하는 도구(scale)와 금전 윤리의 측정도구(money ethic scale)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연구는 영국,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루마니아, 러시아 등의 나라의 다수 문헌에서 발표되었다(Luna-Arocas and Tang, 2004). Tang and Chen (2008)은 금전욕(돈에 대한 욕망과 열망)이 물질주의(소비와 소유를 통해 건전한 삶을 추구하는 일)보다 더 강하게 비윤리적 행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3개의 구성개념으로 보았다. 첫째는 애정적(affective) 구성개념으로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로 표현될 수 있으며, 둘째, 행동적(behavioral) 구성개념으로는 ‘돈이 나에게 동기부여가 된다’로 표현될 수 있으며, 셋째, 인지적(cognitive) 구성개념으로는 ‘돈이 중요하다’로 표현될 수 있다.

## 2.2 마키아벨리즘

마키아벨리(1469-1572)는 군주론에서 권력을 얻고 유지하는 방법을 조언하고 있다(Machiavelli, 1513/1966). Christie and Geis(1970)는 마키아벨리즘을 연구한 최초의 심리학자였다. 마키아벨리즘은 전적으로 편의주의(expediency), 조종(manipulation), 착취(exploitation), 교활(deviousness)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신뢰, 명예, 관대와 같은 일반적인 선(virtue)과는 거리가 먼 개념이다. ‘윤리적’ 또는 ‘비윤리적’이라는 단어는 마키아벨리즘의 정의에서는 완전히 결여되어 있으며, 따라서 마키아벨리적 행동은 “초도덕적(amoral)”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Fraedrich et al, 1989). 마키벨리적인 사람일수록, 즉 권모술수가 뛰어난 사람일수록 타인의 느낌, 권리, 필요를 감안하지 않고 목적 달성을 위해 공격적이고 교활한 수단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Wilson et al., 1996). 마키아벨리적인 사람일수록 타인을 더 조종하고, 이기고 설득하려 하며(Christie and Geis, 1970; Schepers, 2003), 높은 성과를 내려하며(Aziz et al., 2002), 잘못을 후회하는 집단에게 더 공격적이며(Harrell, 1980), 사회적인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향이 높았다(Wilson et al., 1996).

마키아벨리적인 사람들은 무분별하기 보다는 계획적으로 자신의 인상(impression)을 관리를 함으로써 단기적인 사회적 소통에 있어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한다(Bolino and Turnley, 2003). 또한 마키아벨리적인 사람은 반사회적인 행동과 연관이 높으며, 금전적 성공이라는 목표를 공공연히 드러내는데 많은 관심을 보인다. 젊은 관리자가 나이든 관리자 보다 더 마키아벨리적인 것으로도 드러났다(Ross and Robertson,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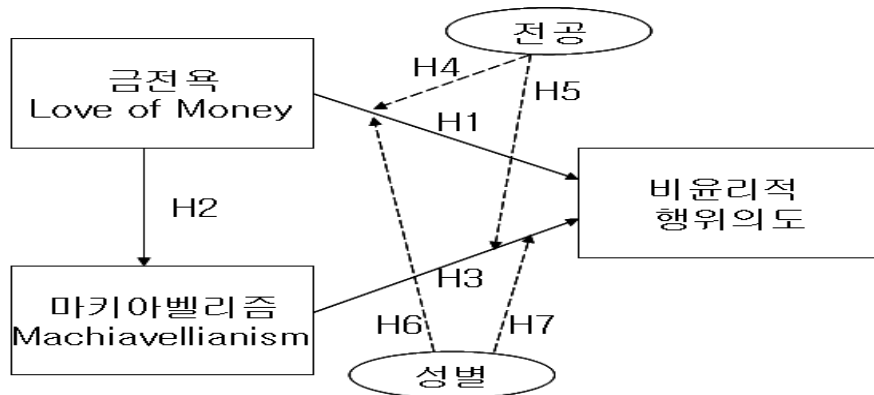
## 2.3 비윤리적 행위

비윤리적 행위를 직접적으로 관찰하고 측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렇지만 면대면 인터뷰 방식보다 익명식 설문조사를 통해 사람들의 생각을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Richman et al., 1999). 자기 보고서(self-report)나 동료의 평가보고서가 타인을 향한 비생산적인 행동이나 작업 스트레스 요인(stressor)과 현저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도 있다(Fox et al, 2007). 따라서 행동 의도나 자기 보고서는 실제로 비윤리적인 행위를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대리 도구(surrogate measures)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윤리적 행위를 측정하기 위해 행위 의도를 사용하였는데, 많은 대리 측정 도구들 중에서 5개의 부구성개념(자원 남용, 묵인, 절도, 부패, 사기)으로 구성된 비윤리적 행위를 하려는 경향(PUB: propensity to engage in unethical behavior scale)을 활용하였다.

### III. 연구 방법

#### 3.1 연구 모형

<그림 1>은 본 연구에 포함되는 요인들의 잠정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마음 속에 각인되어 있는 가치관이라 할 수 있는 ‘금전욕(love of money)’이 각자가 통제할 수 있는 기질인 ‘마키아벨리즘’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 ‘마키아벨리즘’은 ‘비윤리적 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한편 전공(경영학 vs. 심리학)과 성별을 조절변수로 포함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 3.2 가설의 도출

부자가 되려는 미국 성인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비행위를 묵인하는 성향을 보였다(Vitell et al., 2006). 홍콩의 전문직업인들에게 있어 금전욕은 비윤리적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으며 급여 불만족을 통해 간접적으로 비윤리적 행위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ng and Chiu, 2003). Tang et al.(2007)은 6개 대륙의 30개 국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금전욕과 비윤리적 행위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GDP 2만불 이상의 국가와 5천~2만불의 국가의 경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5천불 이하의 국가는 그렇지 않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H1: 금전욕은 비윤리적 행위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금전욕이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근원적인 욕망,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려는 동기부여 그리고 돈을 중시하는 태도를 반영한다. 마키아벨리즘은 비윤리적 행위와 관계된 개인의 특성 중에 한 변수로 지금까지 자주 검토되어 왔다(Hegarty and Sims, 1978). 마키아벨리즘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목적 성취를 위해 공격적, 조작적, 착취적이며 교활한 술수와 전략을 구사하도록 만드는 행동적 기질이다. 한편 금전욕은 마키아벨리즘보다 한층 더 근원적인 가치관을 말하며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비용을 치르더라도 이기려하도록 만드는 속성이 있다. 이 두 변수 간 관계의 방향성은 기존 문헌으로 볼 때 논의된 기간이 짧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은 것 같다(Tang and Chen, 2008). 그러나 성경 말씀 “부(富)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ruin)과 멸망(destruction)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개역성경, 딤후 6: 9)를 근거로 할 때, 쉽고 빠르게 부자가 되기를 원하며, 돈을 사랑하며, 물질주의 가치관을 보유한 개인일수록 조작적 전략을 택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경향이 높다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금전욕이 마키아벨리즘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H2: 금전욕은 마키아벨리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협상게임에서 마키아벨리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어떤 행동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면 윤리성이 결여되며, 투명성을 요구할 때 다양한 회피 전략을 구사하며, 도피하는 경향이 높다(Gunnthorsdottir et al., 2002). MBA 학생의 경우,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 보상을 하였거나 경쟁이 심할수록 비윤리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높았다(Hegarty and Sims, 1978). 따라서 마키아벨리즘은 비윤리적 행위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H3: 마키아벨리즘은 비윤리적 행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는 전공과 성별이라는 2개의 조절변수를 포함하였다. 이하 금전욕, 마키아벨리즘 각각이 비윤리적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공과 성별의 조절 효과에 관한 과거 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 3.2.1 전공(major)

윤리적 판단, 권위에의 복종, 보상을 받는 행위를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사회적 배경이나 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Litzky et al., 2006; Trevino and Brown, 2004).

대학의 전공은 그 학생의 사회적 배경과 문화를 결정짓는 요인들의 하나라는 전제 하에, 금전욕과 마키아벨리즘이 비윤리적 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경영학을 전공하는 학생과 심리학을 전공하는 학생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Chen and Tang, 2006).

Staw et al.(1986)의 기질론과 대학교육의 경제적 급부에 관한 Bok(1993)의 연구에 의하면 경영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금전욕이 더 강하며(Cunningham et al., 2004; McCabe et al., 2006), 남을 도우려는 동기를 가진 사람이 심리학을 전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Frank et al.(1993)은 경제학입문을 수강한 학생들의 정직성은 현저하게 하락하고 자기 이익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대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McCabe et al.(2006)은 남보다 앞서기 위해 커닝과 같은 행위를 용인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타 전공에 비해 경영학 전공 학생들이 더 많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람들의 사회적 환경이 그 사람의 태도, 가치관, 행동패턴에 미치는 영향이 전공에 따라 다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Litzky et al., 2006; Trevino and Brown, 2004).

마키아벨리즘이 비윤리적 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대학의 전공이나 성별(gender)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할 때, 금전욕구가 강한 경영학 전공 학생들은 모든 희생을 감내하더라도 이기려는 성향을 보이고, 마키아벨리즘을 행동지침으로 생각하여 비윤리적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Giacalone, 2004; Litzky et al., 2006), 반면에 타인을 도우려는 성향을 지닌 심리학 전공 학생은 정서적으로 남을 해하려는 능력이 약하며(Wilson et al., 1996), 마키아벨리즘을 인상관리전략(impression management tactic)으로 사용하므로(Bolino and Turnley, 2003) 비윤리적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4: 금전욕과 비윤리적 행위의도와의 상관관계는 경영학 전공 학생과 심리학 전공 학생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H5: 마키아벨리즘과 비윤리적행위와의 상관관계는 경영학 전공 학생과 심리학 전공 학생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3.2.2 성별(gender)

남녀의 마키아벨리즘 성향에 대한 연구는 남성이 높다는 연구, 비슷하다는 연구, 여성이 높다는 연구들이 혼재되어 있다(Christie and Geis, 1970; Webster and Harmon, 2002; Rayburn and Rayburn, 1996). 그렇지만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커리어 성취에 대한 관심이 더 높으며 그래서 부당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았으며(Malinowski and Berger, 1996), 불안정한 제품에 대해 여성 관리자가 남성 관리자에 비해 더 윤리적으로 대처하였



다(Hoffman, 1998).

여성이 도덕적 수준이 높은 편이고 남성에 비해 더 윤리적이기 때문에 마키아벨리즘에 높은 점수를 보인 여성은 이것을 자신들의 인상관리전략(impression management tactic)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Bolino and Turnley, 2003).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마키아벨리적 성향이 더 강하다는 이전의 가설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6: 금전욕과 비윤리적 행위의도와의 상관관계는 남녀 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H7: 마키아벨리즘과 비윤리적행위와의 상관관계는 남녀 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3.3 설문지의 개발과 자료의 수집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전욕, 마키아벨리즘, 비윤리적 행위의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금전욕을 측정하기 위해 Tang and Chiu(2003)의 연구가 사용한 항목을 도입하였으며, 마키아벨리즘을 측정하기 위해 Machiavelli(1966)와 Christie and Geis(1970)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아울러 비윤리적 행위의도는 Chen and Tang(2006)의 연구를 참조하여 개발하였다. 아울러 설문대상자의 성별, 학년, 전공을 묻는 항목을 설문지에 포함하였다.

금전욕과 마키아벨리즘을 측정하는 항목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를 5점, ‘동의한다’를 4점, ‘중립이다’를 3점, ‘동의하지 않는다’를 2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를 1점으로 하는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비윤리적 행위 의도는 기술한 행위의 가능성을 묻는 것으로써 ‘정말 그럴 것이다’를 5점, ‘그럴 것이다’를 4점, ‘보통’을 3점, ‘그렇지 않을 것이다’를 2점,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를 1점으로 하여 측정하였다.

변수들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금전욕은 9개 항목으로 구성된 3개의 요인(돈에 대한 태도, 동기부여, 중요도/가치)으로 묶여졌으며, 마키아벨리즘은 단일 요인에 4항목, 비윤리적 행위 의도는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4개 요인(방관, 절도, 부패, 속임)으로 묶여졌다. 단 마키아벨리즘을 측정하는 4번째 문항(MACH 4)의 적재량이 너무 낮아 자료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각 변수별 설문항목들의 내적일관성, 즉 신뢰도를 나타내는 신뢰계수(Cronbach' a)도 모두 0.6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Nunnally, 1978)

설문 조사는 K대학 경영대학에 재학 중인 3, 4학년 학생 148명과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에 재학 중인 3, 4학년 1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경영대학의 경우 ‘IT/IS 운영과 정책’과 ‘재무관리’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사회과학대학의 경우 ‘상담심리학’과 ‘심리학사’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해당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들만 조사에 포함하였기 때문에 타 단과대학에서 일반 선택으로 수강하는 학생들은 본 조사에서 배제하였다.

<표 1> 요인분석 결과

요인	문항	변수별 요인적재량							
		태도	동기 부여	중요도/가치	마키아벨리즘	방관	절도	부패	속임
금전욕	LOM 1	.85							
	LOM 2	.69							
	LOM 3	.61							
	LOM 4		.81						
	LOM 5		.72						
	LOM 6		.63						
	LOM 7			.91					
	LOM 8			.82					
	LOM 9			.71					
마키아벨리즘	MACH 1				.76				
	MACH 2				.71				
	MACH 3				.64				
	MACH 4				.43				
비윤리적 행위의도	IUB 1					.84			
	IUB 2					.72			
	IUB 3					.70			
	IUB 4					.61			
	IUB 5						.75		
	IUB 6						.71		
	IUB 7						.68		
	IUB 8						.65		
	IUB 9							.88	
	IUB 10							.79	
	IUB 11							.76	
	IUB 12							.71	
	IUB 13								.76
	IUB 14								.69
	IUB 15								.63
신뢰계수(Cronbach' a)		.79	.82	.76	.67	.82	.77	.68	.70

## IV. 분석 결과

### 4.1 표본의 특성

<표 2>는 본 연구에 참여한 표본의 특성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 남녀의 비율은 각각 47.7%, 52.3%로 비슷하였으며, 극소수의 2학년 학생들이 있었으나 다수의 학생이 3학년 4학년 학생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수의 심화 전공과목들을 수강한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표본의 특성

(단위: 명)

		경영대학	심리학과	합계
성별	남	82(55.4%)	44(37.9%)	126(47.7%)
	여	66(44.6%)	72(62.1%)	138(52.3%)
소계		148(56.0%)	116(44.0%)	264(100%)
학년	2학년	3(0.2%)	7(0.6%)	10(3.8%)
	3학년	89(60.1%)	74(63.8%)	163(61.7%)
	4학년	56(39.7%)	35(35.9%)	91(34.5%)
소계		148(56.0%)	116(44.0%)	264(100%)

### 4.2 가설 검증

수집된 자료는 구조방정식모델(SE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LISREL v8.30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가 사용한 모델과 데이터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 = 545.21$ ,  $df = 324$ ,  $\chi^2/df = 1.68$ ,  $p < .01$ ,  $TLI = .93$ ,  $CFI = .97$ ,  $RMSEA = .03$ )

#### 4.2.1 경로분석 결과

경로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금전욕이 비윤리적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마키아벨리즘이 비윤리적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한편 금전욕이 마키아벨리즘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여 금전욕이 마키아벨리즘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비윤리적 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H1은 기각되었지만 H2와 H3는 채택되었다.

<표 3> 경로분석 결과 및 가설 검정 (전체 표본)

가설	경로	경로 계수	T값	검정결과
H1	금전욕→비윤리적 행위의도	0.047	0.978	기각
H2	금전욕→마키아벨리즘	0.222	3.384**	채택
H3	마키아벨리즘→비윤리적 행위의도	0.150	2.429**	채택

주) \*  $p < 0.05$ , \*\*  $p < 0.01$

#### 4.2.2 전공의 매개효과 분석

<표 4>는 경영학 전공 학생의 전공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경영대학 학생의 경우 금전욕이 마키아벨리즘에 미치는 영향과 마키아벨리즘이 비윤리적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금전욕이 비윤리적 행위의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02, 간접적인 효과는 .15였으며, 금전욕이 마키아벨리즘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38, 간접효과는 .00이었으며, 마키아벨리즘이 비윤리적 행위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36, 간접적인 효과는 .00이었다. 따라서 금전욕은 마키아벨리즘을 통하여 비윤리적 행위의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는 심리학 전공 학생의 전공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심리학과 학생의 경우, 금전욕이 마키아벨리즘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지만 마키아벨리즘이 비윤리적 행위의도에 미친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경영학 전공학생과 심리학 전공학생의 세 변수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의 수치를 비교해 보면 i) 금전욕이 마키아벨리즘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두 전공 모두 강하지만 ii) 금전욕과 마키아벨리즘 각각이 비윤리적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심리학 전공 학생의 경우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H4와 H5는 채택되었다.

<표 4> 전공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경영학 전공)

경로	회귀 계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금전욕→비윤리적 행위의도	0.02	.02	.15	.17
금전욕→마키아벨리즘	0.38**	.38	.00	.38
마키아벨리즘→비윤리적 행위의도	0.36**	.36	.00	.36

주) \*  $p < 0.05$ , \*\*  $p < 0.01$ , \*\*\*  $p < 0.001$

&lt;표 5&gt; 전공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심리학 전공)

경로	회귀 계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금전욕→비윤리적 행위의도	-0.09	-.09	.12	-.03
금전욕→마키아벨리즘	0.46**	.46	.00	.46
마키아벨리즘→비윤리적 행위의도	0.20	.20	.00	.20

주) \*  $p < 0.05$ , \*\*  $p < 0.01$ , \*\*\*  $p < 0.001$

#### 4.2.3 성별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표 6>과 <표 7>은 성별의 매개효과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금전욕은 남성의 경우에만 마키아벨리즘을 통하여 비윤리적 행위의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며, 여성의 경우 금전욕이 마키아벨리즘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으나 마키아벨리즘이 비윤리적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금전욕이 남학생의 경우 마키아벨리즘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비윤리적 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친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H6과 H7은 채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lt;표 6&gt; 성별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남성)

경로	회귀 계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금전욕→비윤리적 행위의도	0.06	.06	.17	.23
금전욕→마키아벨리즘	0.30**	.30	.00	.30
마키아벨리즘→비윤리적 행위의도	0.32**	.32	.00	.32

주) \*  $p < 0.05$ , \*\*  $p < 0.01$ , \*\*\*  $p < 0.001$

&lt;표 7&gt; 성별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여성)

경로	회귀 계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금전욕→비윤리적 행위의도	0.05	.05	.15	.17
금전욕→마키아벨리즘	0.48**	.48	.00	.48
마키아벨리즘→비윤리적 행위의도	0.09	.09	.00	.09

주) \*  $p < 0.05$ , \*\*  $p < 0.01$ , \*\*\*  $p < 0.001$

## V. 토론 및 결론

전체적으로 금전욕이 비윤리적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하였지만 마키아벨리즘이 비윤리적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금전욕은 간접적으로 비윤리적 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견은 Tang and Chen(2008)의 논문에서 미국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와 매우 흡사하였다.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일만 악의 근본으로 지칭된 금전욕(love of money)은 돈을 벌기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초도덕적(amoral)’개념인 마키아벨리즘과는 높은 관계를 보였으며, 타인의 느낌, 권리, 필요를 감안하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교활한 수단을 이용하려는 마키아벨리적 사람(Wilson et al., 1996)일수록 높은 비윤리적 행위의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학을 전공하는 동기는 금전욕과 많은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Cunningham et al., 2004; McCabe et al., 2006). 전공(경영학, 심리학)에 따라 두 개의 경로, 즉 금전욕→비윤리적 행위의도, 금전욕→마키아벨리즘→비윤리적 행위의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각기 달랐다. 경영학 전공자와 심리학 전공자 모두 금전욕이 마키아벨리즘에 미치는 영향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전공과는 상관없이 마키아벨리적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경영학 전공자의 경우, 마키아벨리적 성향이 비윤리적 행위의도에 미친 영향이 유의하였지만 심리학 전공자의 경우 그렇지 않았다. 이는 남을 도우려는 선한 동기를 더 많이 가진 심리학 전공자일수록 비록 마키아벨리적 성향을 지닌 사람일지라도 이것이 비윤리적 행위의도로 덜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심리학 전공자의 경우 마키아벨리즘이 비윤리적 행위의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경영학 전공자보다 현저하게 낮았으며 유의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비윤리적 행위는 상황에 따라 갑자기 촉발될 수 있는 역동성이 있으므로 행위자의 전공이 이런 성향을 내재화한다는 식의 설명은 지나치게 편협할 수 있다. 성별의 매개효과도 전공의 매개효과와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남성과 여성 모두 금전욕 자체가 비윤리적 행위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였으며 회귀계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 모두 금전욕은 마키아벨리즘과 직접적인 관계성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즉 성별에 상관없이 돈을 사랑하는 금전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성취하려는 마키아벨리적 성향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남성은 여성의 경우와는 달리 마키아벨리적 성향이 비윤리적 행위의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더 강하였다.

본 연구는 경영학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윤리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일부 기독교 경영학자들은 배금주의(Mammon Worship) 극복을 위한 기독교적 교육 방법론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최무진과 임은정, 2008). 물질적 풍요와 높은 임금이 행복과

상관관계가 없으며(Kasser and Ryan, 1993; Myers, 2000), 금전욕은 삶의 질(노동시간)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chor, 1992). 이러한 연구들은 금전욕(love of money)을 제어하는 교육을 통해 많은 사회적 문제(경영윤리 문제 포함)가 해결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그러나 인간의 비윤리적 행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마키아벨리즘을 경영윤리교육이 적절하게 다루고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마키아벨리적 성향의 사람일수록 타인의 느낌, 권리, 필요를 감안하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므로 비윤리적 행위를 할 가능성 높다고 볼 때, 이 마키아벨리적 성향을 억제하고 조절하는데 필요한 교육이 경영윤리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인간의 보다 근원적인 뿌리를 두고 있는 금전욕을 통제하는 것 보다 마키아벨리즘을 통제하는 교육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성경적 경영윤리교육은 근원적 심성을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경영학 교육의 심화가 금전욕과 마키아벨리즘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경영학과 1학년과 4학년을 비교 분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한국경영학회, 기업윤리와 경영교육, 추계특별연구발표논문집, 1991.
- 최무진, 임은정, “배금주의 극복을 위한 기독교적 교육의 모색,” 로고스경영연구, 6권 2호 (2008), pp. 13-29.
- Aziz, A. K., May, K. and Crotts, J. C. “Relations of Machiavellian Behavior with Sales Performance of Stockbrokers,” Psychological Reports, Vol. 90, No. 2, 2002, 451-460.
- The American Freshman, 1994, Higher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 Bok, D., The Cost of Talent: How Executives and Professionals are Paid and How It Affects America, 1993, New York: The Free Press.
- Bolino, M. C. and Turnley, W. H., “More Than One Way to Make an Impression: Exploring Profiles of Impression Management,” Journal of Management, Vol. 29, 2003, 141-160.
- Bryan, R. G., “A Survey on Causes of Dissatisfaction at College,” Paper presented at the 112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July 28 - August 1, 2004.
- Chen, Y. J. and Tang, T. L. P., “Attitude toward and Propensity to Engage in

- Unethical Behavior: Measurement Invariance across Major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 69, No. 1, 2006, 77-93.
- Christie, R. and Geis, F. L., *Studies in Machiavellianism*, 1970, Academic Press, New York.
- Cunningham, P. H., Frauman, E., Ivy, M. I., and Perry, T. L., "The Value of Money and Leisure and College Student's Choice of Major," *SCHOLE: A Journal of Leisure Studies and Recreation Education*, Vol. 19, 2004, 65-72.
- Du, L. Z. and Tang, T. L. P., "Measurement Variance across Gender and Major: The Love of Money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People's Republic of China,"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 59, No. 3, 2005, 281-293.
- Feiner, M., *The Feiner Points of Leadership*, 2004, Warner Business Books, New York.
- Fox, S., Spector, P. E., Goh, A. and Bruursema, K., "Does Your Coworker Know What You're Doing? Convergence of Self- and Peer-Reports of Counter Productive Work Behavior,"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es Management*, Vol. 14, No. 1, 2007, 41-60.
- Fraedrich, J., Ferrell, O. C. and Pride, W., "An Empirical Examination of Three Machiavellian Concepts: Advertisers vs. the General Public,"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 8, No. 9, 1989, 687-694.
- Frank, R. H., Gilovich, T. and Regan, D. T., "Does Studying Economics Inhibit Coopera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7, No. 2, 1993, 159-171.
- Giacalone, R. A., "Transcendent Business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and Education*, Vol. 3, No. 4, 2004, 415-420.
- Gunnthorsdottir, A., McCabe, K. and Smith, V., "Using the Machiavellianism Instrument to Predict Trustworthiness in a Bargaining Game,"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Vol. 23, No. 1, 2002, 49-66.
- Harrell, W. A., "Retaliatory Aggression by High and Low Machiavellians against Remorseful and Non-Remorseful Wrongdoer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Vol. 8, No. 2, 1980, 217-220.
- Hegarty, W. H. and Sims, H. P., "Some Determinants of Unethical Decision Behavior: An Experimen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63, No. 4, 1978, 451-457.
- Hoffman, J. J., "Are Women Really More Ethical than Men? Maybe It Depends on the Situation," *Journal of Managerial Issues*, Vol. 10, No. 1, 1998, 60-73.
- Honeycutt, E. D., Glassman, M. T. Zugelder and Karande, K., "Determinants of Ethical Behavior: A Study of Autosalespeople,"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 32, 2001, 69-79.



- Kasser, T. and Ryan, R., "A Dark Side of the American Dream: Correlates of Financial Success as a Central Life Aspi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5, 1993, 410-422.
- Kochan, T. A., "Addressing the Crisis in Confidence in Corporation: Root Causes, Victims, and Strategies for Reform,"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Vol. 17, 2002, 139-141.
- Law, K. S., Wong, C. S. and Mobley, W. H., "Toward a Taxonomy of Multidimensional Construct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23, No. 4, 1998, 741-755.
- Litzky, B. E., Eddleston, K. A. and Kidder, D. L., "The Good, the Bad, and the Misguided: How Managers inadvertently Encourage Deviant Behaviors", *Academy of Management Perspectives*, Vol. 20, No. 1, 2006, 91-103.
- Luna-Arocas, R. and Tang, T. L. P., "The Love of Money, Satisfaction, and the Protestant Work Ethic: Money Profiles among University Professors in USA and Spain,"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 50, 2004, 329-354.
- Machiavelli, N., *The Prince*, 1966, New York: Bantam, Original work published 1513.
- McCabe, D. L., Butterfield, K. D. and Trevino, L. K., "Academic Dishonesty in Graduate Business Programs: Prevalence, Causes, and Proposed Action,"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and Education*, Vol. 5, No. 3, 2006, 294-305.
- Malinowski, C. and Berger, K. A., "Undergraduate Student Attitudes about Hypothetical Marketing Dilemmas,"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 15, No. 3, 1996, 525-535.
- Myers, D., *The American Paradox: Spiritual Hunger in an Age of Plen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0.
- Nunnally, J. C., *Psychometric Theory*, 2nd ed., New York, McGraw Hill, 1978.
- Rayburn, J. M. and Rayburn, L. G., "Relationship between Machiavellianism and Type A Personality and Ethical-Orientations,"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 15, 1996, 1209-1219.
- Richman, W. L., Kiesler, S., W. and Drasgow, F., "A Meta-Analytic Study of Social Desirability Distortion in Computer-Administered Questionnaires, Traditional Questionnaire, and Interview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1999, 754-775.
- Ross, W. T. and Robertson, D. C., "Lying: the Impact of Decision Context," *Business Ethics Quarterly*, Vol. 10, No. 2, 2000, 409-440.
- Sax, L. J., Lindholm, J. A., Astin, A. W., Korn, W. S. and Mahoney, K. M., *The American Freshmen: National Norms for Fall 2003*, Los Angeles: Higher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UCLA, 2004.

- Schepers, D. H., "Machiavellianism, Profit, and Dimensions of Ethical Judgement: A Study of Impact,"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 42, 2003, 339-352.
- Schor, J., *The Overworked American*, New York: Basic Books, 1992.
- Sims, R. R., "The Challenge of Ethical Behavior in Organizations,"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 17, No. 7, 1992, 505-513.
- Sloan, A., "The Jury's in: Greed Isn't Good," *News Week*, June 24, 2004.
- Staw, B. M., Bell, N. E. and Clausen, J. A., "The Dispositional Approach to Job Attitudes: A Lifetime Longitudinal Test," *Administratively Science Quarterly*, Vol. 31, 1986, 56-77.
- Tang, T. L. P. and Chiu, R. K., "Income, Money Ethic, Pay Satisfaction, Commitment, and Unethical Behavior: Is the Love of Money the Root of Evil for Hong Kong Employees?,"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 46, 2003, 13-30.
- Tang, T. L. P. et al., "Doing Well by Doing Good: Does Economic Development Make a Difference?," Paper presented at the Academy of Management Annual Meetings, Aug. 3-8, 2007, Philadelphia, PA.
- Tang, T. L. P., Tang, T. L. N. and Homaifar, B. Y., "Income, the Love of Money, Pay Comparison, and Pay Satisfaction: Race and Gender as Moderators,"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Vol. 21, No. 5, 2006, 476-491.
- Tang, T. L-P and Chen, Y., "Intelligence vs. Wisdom: The Love of Money, Machiavellianism, and Unethical Behavior across College Major and Gender,"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 51, 2008, 1-26.
- The Economist, "Special Report: But Can You Teach It? - Business Schools" May 22, 2004, London.
- Trevino, L. K. and Brown, M. E., "Managing to be Ethical: Debunking Five Business Ethics Myths",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Vol. 18, No. 2, 2004, 69-81.
- Vitell, S. J., Paolillo, G. P. and Singh, J. J., "The Role of Money and Religiosity in Determining Consumers' Ethical Belief,"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 64, 2006, 117-124.
- Webster, R. L. and Harmon, H. A., "Comparing Levels of Machiavellianism of Today's College Students with College Students of the 1960s", *Teaching Business Ethics*, Vol. 8, No. 4, 2002, 435-445.
- Wilson, D. S., Near, D. and Miller, R. R., "Machiavellianism: A Synthesis of Evolutionary and Psychological Literatures," *Psychological Bulletin*, Vol. 119, 1996, 285-299.

### [저자 소개]

저자 최무진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Georgia State University에서 경영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하였다. 한국경영교육학회 편집위원장, 한국의사결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경영정보학회 Information System Review의 편집위원, 한국정보시스템학회 회장, 한국로고스경영학회 부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계명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구제일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도서 「정신문화와 기독교」, 「성경의 경영원리」의 집필에 참여하였다.

## Exploring Relationships among the Love of Money, Machiavellianism and the Intention of Unethical Behavior

Choi, Moo-Jin\*

<Abstract>

First, this paper reviewed various factors causing people's unethical behavior, and then investigated impacts of these factors on the unethical behavior. Specifically, the paper investigated impacts of the love of money (LOM) and Machiavellianism (Mach) on the intention of unethical behavior (IUB) and a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factors. Besides this research is interested in moderating effects of college major (management vs. psychology) and gender on the relationships among LOM, Machiavellianism and IUB.

Overall, the impact of LOM on IUB is less than Mach on IUB tha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at is, LOM affects indirectly IUB via Mach. Besides, impacts of LOM and Mach on IUB differ depending upon the major and gender. For male students majoring management, the moderating effect of Ma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OM and IUB is greater compared to the opposites

Key words: Love of Money, Machiavellianism, Unethical Behavior

---

\* Professor, Dept of MIS, Keimyung University